퍼펙트 論述

언어 논술-대중문화의 허와 실

시대 흐름에 맞는 대중문화 기능 파악을

1. 오빠부대, 누나부대

한 무더기의 소녀팬들 이른바 '오빠 부대'를 이끌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젊음에 자아 도취한 꽃미남들이 TV 속을 종횡무진 하는 세상이다. 어디 그뿐인가. '부엌에 들어가면 XX 떨어진다, 남자는 자고로 진중하고 무게가 있어야 한다'던 어르신들의 말씀은 간 데 없고, 효리 누나의 눈웃음 한 번, 아이비의 콧소리 섞인 몸짓에는 자신들의 중요한 것이야 떨어지든 말든 '누나~!'를 연발하는 혈기 왕성한 남학생들도 오빠 부대에 버금가는 세상이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있다.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열광하게 하는 것인가?

2005년 개봉 당시 이준기라는 신예 배우를 배출하며 관객 몰이에 나섰던 영화가 있다. 다름 아닌 '왕의 남자'. '왕비의 남자'도 아니고, '왕의 첩'도 아니고 '왕의 남자'란다. 이상 야릇한 호기심을 유발하는 제목 덕분인지 주연 배우들의 연기력 덕분인지 관객 동원 수가 무려 1천230만명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준기의 샘이 나리만치 어여쁜 외모도 아니고 입이 떡 벌어질 만한 관객 수도 아니다. 왕의 남자 속 광대들의 삶. 그 천박하디 천박한 그들의 처지이다.

남자로 태어났으면서도 대가집 주인 마님의 수청을 들라면 들어야 했던, 서럽도록 고운 외모를 한없이 저주스러워 했던 공길(이준기 분)의 모습을 보자. 그들이 그토록 인간답지 못한 삶을, 한 맺힌 삶을 살아야 했던 이유는 그들이 '광대'였기 때문이다.

'광대'가 무엇인가? 1970~80년대까지도 '딴따라'라는 이름으로 천대받던 그러나 지금은 '스타'라는 이름으로 추앙받는 존재이다. 같은 직종(?)에 종사하면서도 천대받는 공길과 추앙받으며 스타덤에 오른 이준기. 그 차이는 대중문화의 특성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2. 대중 문화는 저질문화?

대중 문화는 매우 여러 가지로 규정된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글자 그대로를 풀이하여 '다수가 향유하는 문화'로 정의 내리는 것이다. 그러나 소수만이 향유하는 문화가 일시적으로 대중의 관심을 끄는 경우도 있기에 매우 제한적인 정의라 할 수 있다.

대중 문화를 사회적 흐름에서 바라본다면, 이는 '고급 문화와 상대되는 문화'라고 정의할 수 있다. 대중이라는 용어는 특정한 구별을 두지 않는 단순한 사람들의 집합이다. 이는 중세 유럽 사회에서 교육을 받지 못한 민중을 일컫는 데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산업 사회의 발달과 대중 사회의 형성으로 양산된 문화는 소위 교양을 갖춘 상류층의 '고급 문화'를 위협하게 되었다.

따라서 '대중 문화=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저질 문화'라고 구분짓게 되고, 그러한 생각이 대중 문화를 규정하는 사고의 틀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러니 대중 문화에 대한 시각은 그리 고울 리 없다. 즉, 질펀한 저잣거리에서 민중들을 울리고 웃기던 공길도 '저질 문화를 양산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았고, 우리네 희로애락을 담은 유행가를 부르는 가수들도 '저질 문화를 양산하는 딴따라'일 수밖에 없었다.

3.두 얼굴의 대중문화

이러한 시각으로 보니 대중 문화는 문제투성이로 비치기 일쑤이다. 그 중 상업성과 결탁하여 대중 문화의 주체여야 할 대중이 생산의 주체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과 '우매한 대중' 양산은 대중 문화 비판의 단골 메뉴이다.

대중 문화의 생산 주체에서 대중이 배제되는 문제는 매스 미디어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대중 문화는 매스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된다. 그러나 그 규모와 비용이라는 특성상 대중이 임의로 문화를 제작하고 유포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이로 인해 특정 생산 권력이 대중의 취향을 임의로 조정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중은 과거의 대중에 비해 영악해졌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자신의 뇌리에 파고드는 대중 문화 코드를 받아들이며 스스로 무뇌아가 되어 상업주의의 꼭두각시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는다. 이제는 매체의 발달을 발판삼아 적극적으로 자신의 문화 코드를 확산시키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는 UCC(User Created Content, 사용자 제작 콘텐츠)의 발달이다. 자신의 블로그와 홈페이지에 관심 있는 분야의 UCC를 자체 제작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만드는 일은 이제 낯설지 않다.

또한, 프로듀서(producer)와 컨슈머(consumer)의 조합으로 탄생한 '프로슈머(Prosumer)'는 대중이 중심이 되는 생산라인을 구축하는 단초가 된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모집한 프로슈머들은 직접 생산 과정에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이 과정에서 직접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일조하게 된다. 또한, 그렇게 생산된 상품, 콘텐츠를 자신이 소유한 매체를 이용하여 전달하기까지 한다. 실제로 이러한 시도가 성공을 이루면서 소비자의 반응에 냉담한 생산자는 이른바 '대박'을 치기 어려워졌다는 의미이다. 그러하기에 대중 문화가 단지 '대중이 배제된 상업 문화'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중 문화에 대한 또 다른 비판점은 대중의 의식을 탈정치화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중 문화가 현실과 동떨어진 오락거리를 제공하는 데 그친다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결국, 대중의 관심을 정치가 아닌 오락거리에 붙들어 맴으로써 대중의 의식을 탈정치화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동시에 대중 문화는 사회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대중 문화가 비교적 정치성이 약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중 문화의 개념을 '사회에 저항하는 민중(people)'으로 규정하는 시각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때의 대중 문화는 민중의 정서에서 우러난 것으로서, 민속 문화와 같은 공동체 문화가 대중 문화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러한 시각을 가장 단순화시켜 생각해 보자. TV코미디 프로그램인 '웃찾사'에는 '형님뉴스'라는 코너가 있다. 한 때 지하철 노선을 줄줄이 외느라 목에 핏대를 올렸던 '수다맨'이 어느새 깍두기 형님이 되어 돌아왔다. 코너가 시작되면서 나타나는 어눌한 조직폭력배의 모습은 시종일관 웃음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속이 다 시원해진다. 시사적인 문제나 국회의원에 대한 촌철살인(寸鐵殺人)이 가히 명품이기 때문이다. '수다맨'의 관록을 담은 비판적 시각은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를 통해 대중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이다. 규격화된 담론의 장에서는 자칫 민감하여 꺼리게 되는 권력의 문제, 사회 부조리의 문제가 서슴없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조선시대 판소리나 사당패의 연극 또한 그러하지 않았을까? '왕의 남자'에서 '장생(감우성 분)'과 '공길(이준기 분)'은 연산의 애첩 녹수의 방자함을 희화하는 놀이를 하여 민중들을 대신하여 연산과 녹수를 비판한다. 또한, 궁에 들어간 후 여인들의 암투로 인해 왕이 후궁에게 사약을 내리는 경극을 연기하고, 연산은 같은 이유로 왕에게 사약을 받았던 생모 폐비 윤씨를 상기하며 진노하여 그 자리에서 선왕의 여자들을 칼로 베어 죽게 한다. 공공연한 비밀, 그러나 누구도 선뜻 드러내지 못하는 부조리는 남사당패의 목숨을 건 한 판 놀이를 통해 세상에 공개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중 문화가 민중을 탈정치화하는 역할만 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4. 대중 문화의 질적 성숙 누구의 몫인가?

세상에 '문화'만큼 광범위하고 복잡한 영역이 있을까? 문화를 정의하는 개념도 수두룩하다. 그런데 특정한 개성을 지니지 않은, 흔하디 흔한 집합체인 '대중'의 문화가 대중 문화이다. 이처럼 광범위한 규모(?) 탓에 이에 대한 시각도 다양하다. 어느 한 시각에 후한 점수를 주어 마녀 사냥하듯 대중 문화를 깎아내릴 필요도, 신분 상승을 위한 신종 도구로 승격시킬 필요도 없다.

중요한 것은 대중 문화는 변화하고 있고, 또한 그 방향이 질적 성숙을 이루는 방향이 되도록 하는 바람에는 변화가 없다. 누가 뭐래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대중 문화'의 중심에 '대중'이 있을 때 올바른 문화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대중'이 대중 문화의 실체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건전한 의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기호를 정확히 드러낼 때 효과적인 대중 문화 발전이 이루어진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대중 문화의 올바른 미래를 그리는 시발점이 되는 것이다. 비판적인 시각 속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시시각각 우리 삶에 스며드는 대중 문화를 다시 한 번 해부해 보자.

임 미 정
1318논술연구소
독서논술 팀장

동영상 강의
www.nonsul.1318hi.com

♠실 전 문 제♠

제시문 (가), (나)는 대중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을 설명한 글이다. 제시문 (가)에서 나타난 대중 문화의 특성을 지적하고, 제시문 (나)를 토대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중 문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서술하시오.

(가) 대중 매체의 기본 원칙은 대중 신문이 출현하고 널리 보급된 19세기 말경에 이미 확정되었는데, 그 원칙이란 전체 수용자의 수를 더욱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 맞추어 매체의 내용을 꾸며야 한다는 것이었다. 대중의 존재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느꼈던 19세기 귀족과 지식인들은 그러한 새로운 유형의 문화가 진실한 예술의 아름다움과 존엄성을 해치는 저급 문화라는 이유로 혹독한 비판을 가하였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대중 문화는 흔히 저급 문화로 표현되고, 대중이 아닌 소수의 엘리트를 위한 문화는 고급 문화로 부르게 되었다.

한편, 대중 문화 비판자들은 대중 문화의 상업적 타락에 대해 경계심을 나타냈다. 그들은 대중 문화가 영리 추구를 위해 조직된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로 인해 대중에게 영합하는 동질적이고 규격화한 상품만이 양산될 뿐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대중 문화 비판자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좌파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대중 문화가 대중의 정치로부터의 도피를 부추기고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 체제를 정당화한다고 비판하였다. 그러한 시각에 따르면, 대중 문화는 노동 계급의 수동성과 무관심을 조장하는 자본주의의 도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단호히 거부해야 할 아편과도 같은 것이었다.

- 강준만, '대중 문화의 겉과 속'

(나) 생원 : 이놈, 말뚝아!

말뚝이 : 예에에에.

생원 : 거 나랏돈 노랑돈 칠푼 잘라 먹은 놈 상통이 무르익은 대추빛 같고 울룩줄룩 배미 잔등 같은 놈을 잡아들여라.

말뚝이 : 아, 그놈이 심이 무량대각이요, 날램이 비호같은데 샌님의 전량이나 있으면 잡아 올는지 거저는 잡아올 수 없습니다.

생원 : 오오, 전령? (종이에 무엇인가 써서는) 옛다, 여기 전령 가지고 가거라.

말뚝이 : (종이를 받아들고 취발이에게로 가서) 당신 잡히었소.

취발이 : 어디, 전령보자.

말뚝이 : (취발이를 끌고 가운데로 와서 취발이의 엉덩이를 양반 코앞에 들이대며) 샌님!

취발이 : 잡아들였소.

생원 : 아, 이놈 말뚝아! 이게 무슨 냄새냐?

말뚝이 : 예에, 이놈이 피신을 하여 다니느라고 양치를 못하여서 그렇게 냄새가 나는 모양이외다.

생원 : 그러면 이놈의 모가지를 쑥 뽑아다 밑구녕에다 콱 박아라.

- 중략 -

말뚝이 : 샌님, 거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하필 이놈을 잡아다 죽이면 무엇하겠습니까? 이놈보고 돈이나 몇백 냥 내라고 하여 우리끼리 노나 쓰면 샌님도 좋고 나도 샌님 덕분에 돈냥이나 벌어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샌님은 못 본 체하고 가만히 계시면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 터이니 그리 알고 계십시오.

생원 : 네 재량껏 해라.

말뚝이 : (취발이와 수작을 부려 취발이에게서 돈을 받는다.) 샌님! 돈 받아 왔습니다. 돈!

(노래한다.) 돈돈 돈 봐라. 돈돈 돈 봐라.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 돈 봐라! (계속 노래하며 양단들을 몰고 퇴장한다.)

고시원 매매

♣조대 후문쪽 고시원 매매

♣현재 운영 영업중인 고시원 입니다.

◉5층건물 매매7억5천 융자3억5천

◉6층건물 매매7억5천 융자3억5천

◉6층건물 매매7억5천 융자4억

◉7층건물 매매7억5천 융자3억9천

◉4층 6층건물 매매7억20억 융자6억7천

♣고수익을 보장하는 고시원에 투자 하십시요.

H.P:011-604-5239

대인동삼일부동산
☎(代)223-1140, 5210 핸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등공인중개사
☎(代)383-5221 핸 011-609-5221
(상무지구 입구)
◉건물투자
• 보증금 36억 월세 3,000만원(지역 최고상권) 융자 12억 매매가 85억 (토지와 교환가능)
• 풍림주공아파트 입구(신축빌딩) 융자10억 보증금 10억 월1,800만원 예상 매가 34억
• 치평동 대지1,623㎡(490평) 건평4, 100㎡(1,250평) (신축)병원, 학원적합 예상임대가 보10억 월임대료 4, 000만원
• 보증금 3억 월세 700만원 매가16억(상무2지구)
◉땅투자(상무지구)
• 2,800㎡(850평) 3.3㎡당 1,100만원
• 661㎡(200평) 3.3㎡당 1,200만원
• 1,653㎡(500평) 3.3㎡당 820만원
• 426㎡(129평) 3.3㎡당 650만원(유흥지구)
• 330㎡(100평) 3.3㎡당 800만원(시청역입구)
• 500㎡(150평) 3.3㎡당 850만원(월350만원)
◉모텔매매
• 상무지구 객실 34개 융자 9억7천 매가 12억
• 상무지구 객실 35개 융자 20억 매가 27억
◉상가,사무실(상무지구)
• 상가 297㎡(90평) 보5천만원 월세 650만원 매가 10억
• 치평동 3층 228㎡(69평) 3.3㎡당 390만원
◉임야(농장)
• 광산구 동산동 그린벨트 73,000㎡(2만2천평) 농장 3.3㎡당 11만원
◉공장,창고 및 기타
• 쌍촌동 대지 152㎡(155평)(20M도로접) 3.3㎡당 265만원
• 장등동 3,760㎡(1,140평) 주거지역 3.3㎡당 39만원(부자용)
• 서구 지원녹지(대지)9,900㎡ 3.3㎡당 160만원
• 서구 마륵동 2,545㎡(770평) 3.3㎡당 170만원
◉주유소 부지
• 동림동 및 고을로입구 4,300㎡(1,300평) 3.3㎡당 350만원
★양도세 부동산 교환상담 환영★

정우부동산
☎(代)675-4788~7 핸 011-603-4788
(봉선동 한일병원부근)
건물급매
·대지 260평 건평 약600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9억8천 보증금 1억 2천만원 월약500만원 융자 4억원
·주월동 한일병원부근 대지84 건평 약300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8억 보증금 약1억2천 월390만원
·봉선동 한일병원부근 대지65평 건평 약150평 매매가 3억6천 보증금 8, 000만원 월세220만원 2차선도로접
토지급매
·봉선동 2차선 버스승강장 인접 대지 약160평 평당 550만원
·봉선동 라인하이츠 입구 부근 대지 약185평 매매가 4억4천만원
·남구 봉선동 무등2차 정문부근 대지 약200평 2차선접 매매가 평당 400만원
·월산동 외곽도로 대지 약160평 35m×10m도로코너 평당 450만원
·인성고 부근 주거지 나대지 102평 204평 평당125만원
시외내농지
·광산구 삼도 오운동 약2,200평 평당 7만원
·남평 공장부지 약2000평 평당25만원
·장성 삼계 임야 약7000평 매매가 5천만원
·나주 삼포 광목간도로변 답730평 평당 70만원

첨단월계공인중개사
☎(代)972-4585 핸011-604-6205
(첨단지구 부영A LC빌딩 사거리)
★급매매★
◉첨단 인근 비아동 일반주거지역 1000평 다세대주택, 물류창고, 복지실버시설
◉첨단중심상업지역 1100평 주·상 복합시설적합
첨단 빌딩 임대
·메디칼 빌딩 1층 60m대로변 1층 160평(은행우대)
첨단중심 상업매매
·첨부지방청사 2008년 개청지 앞 360평
·부영·호반아파트 정문 앞 145, 135평
·빅마트·호수공원 부근 유흥지역100평
첨단 원룸 건물 급매
·대68 건145 원룸17 쓰리룸1개 보7000만 월495만 매5억3천만
·대70 대110평 원룸15개 보2000만 월480만 매4억8천만
·대70평 건120 원룸6 투룸3 주인 방3개 보1억2천만 월180만 매4억1천만
첨단 인근 녹지 급매매
·보훈병원 부영아파트 앞 250평
·신창동 제방도로부근 1080평
·신창동 보건대 마을부근 510평
·도천동 공단 8번로부근 450평 700평 공장, 창고 적합
·북구 지야동 30m도로 인근 전후면 도로접 가든, 찻집, 창고, 공장 적합

한일지도판매(주)
☎(야간)529-1409 상담 010-2468-1409 (전화)527-6310, 011-9433-6310
(광주시 동구 지산동 373-8 법원정문앞)
2007 최신 합본(광주·나주·화순·장성·담양·함평) 지번도 책 판매중
안녕하십니까? 한일지도(주) 20주년을 맞이하여 한일지도를 사랑해주신 사장님들께 특별세일을 실시하오니 7.20~8.20 한달동안 좋은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작한 합본책은?
① 광주 광역시 전지역 지점비·도시계획·용도지역·하남4공단 경계수록 최신 지적, 산규APT 수록
② 나주 나주시 전지역, 도시계획, 용도지역, 그린벨트 1·2차 해제수록, 나주송월동 스포츠타운 수록, 송월택지개발 지구 지지번수록 나주 촌끄리 남양유업수록, 혁신도시 최종안 수록, 혁신도시로 연결된 도시계획 수록
③ 화순 화순군 전지역, 도시계획, 용도지역, 그린벨트 1차수록 최신지적 수록
④ 장성 장성군 전지역 도시계획, 용도지역 개발예정인 장성 남면에 그린벨트 1차,2차 해제수록 나노단지 지점, 배치도 수록
⑤ 담양 담양군 전지역 도시계획, 용도지역, 그린벨트 1차, 2차 수록, 최신지적 수록, 보촌지구 수록
⑥ 함평 함평군 전지역, 도시계획, 용도지역 그린벨트 1차 해제 수록, 최신지적 수록
최신 (광주·나주·화순·장성·담양·함평) 지번도 책 판매중 (8개시·군 1권에 수록) 1/7500
한일지도판매(주) 광주(062)529-1409 527-6310
정가:100만원→특별판매가:50만원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장성,담양,화순,나주책은 그린벨트 해제된 책은 없습니다. 이외 더 많은 부분들이 있으나 서면으로는 다 알릴수가 없어 궁금하신 부분이 더 있으신 분은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판매개시 한달동안 전화 예약하신분에 한하여 힘들 달아드리기 위해 50% 세일을 단행하였으니 좋은 기회를 이용하세요.
【영업사원 ○○명 모집】

특급상가 매매·임대
복구 운암동 인근 2천세대 아파트 상가 2층 학원 60평
매매가 21,500(융자6,500/시설.집기포함)
전대후문 70평 노래방(도우미 없는 청정지역)
보증금6,000/월200/시설.권리금12,000 合18,000
영업기간 10년, 최근 리모델링 최신시설(룸 11개, 소방안전필증)
영업시간 19시간 (오전11시~새벽6시), 낮에는 중고생/밤에는 대학생 광주대학상권 중 최고의 유동인구와 상권 밀집지역, 도우미 없는 청정지역 월수익 900만원 이상, 방학이 없는 젊은이들의 상권
노래방 요약 손익계산(최근 3개월) (단위:만원)

매 출	분 류	50만원	60만원	70만원
월 영업일	30일	30일	30일	30일
월 매출 합계		1,500	1,800	2,100
인건비	알바(3명)	200	200	200
	점주인건비	150	150	150
광고비		30	30	30
영업외 비용		100	100	100
전기료 및 공과금	1개월	50	50	50
임대료	1개월	180	180	180
올료수 및 원가	매출의 약15%	225	270	315
월 지출 합계		935	980	1,025
순 이익금		565	820	1,075
점주인건비 포함 이익금		715만원	970만원	1,225만원

전대후문 대로변 바로 건너편 1층 50평 (대지76평)
최고핵심상권 (의류/안경점/커피숍/아동용신/휴대폰/편의점등 프랜차이즈 최적지)
보증금10,000/월700/시설.권리금25,000 合35,000
전대후문 사거리 코너 식당 1층 50평
보증금8,500/월110/시설.권리금6,800 合15,300
상가 임대, 매수, 매매, 전속중개계약전문 공인중개사사무소
BM 公認仲介士 事務所
부동산은 공산품이 아닙니다. 내놓으실때는 최소한 3개월전에 연락주십시요.
업종별 프랜차이즈 점포개발팀 상가분의 환영
항상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mobile)010-7288-4351 ☎(062)4342-894
(전대후문 체육공원 사거리)